

153. 클리닝 의류 사고사례

(20) 호주머니 안쪽에서 걸감으로의 색번짐

□ 호주머니 안쪽에서 걸감으로의 색번짐

해설)

- 방수 코트를 1회째 처리에서는 중성세제 용액으로 옷깃 부분을 솔질하여 물세탁에서 연수로 행구고, 약 30초 탈수 후, 건조기에서 건조를 했는데, 특이한 점은 볼 수 없었음.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왼쪽 소매를 중성세제로 솔질하여 물세탁에서 연수로 행구고, 약 30초 탈수 후, 5시간 동안 자연건조할 때 얼룩이 발생되었음.
- 외관을 관찰하면, 겉으로 배어나온 것에는 솔기 부분에서 내부의 색소가 배어나온 특징이 있음. 이러한 오염유형은 사용된 배합 염료 가운데 물건뢰도가 낮은 염료가 물에 의해서 용출되어 차례로 띠 얼룩(물에 의해서 이동한 성분이 띠를 형성하는 현상)을 발생시킨 경우라고 추정되었음.



- 이러한 오염사례에서는 봉제사를 타고 염료가 내부로부터 배어 나와 단계적으로 띠 얼룩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. 주머니 이외의 봉제 부분에서는 재봉실이 관통하고 있는 데도 같은 현상은 발생하고 있지 않았음.

- 따라서 본 오염사고의 원인은 주머니 안쪽에 사용된 소재의 물건뢰도가 불량하여 장시간 건조하는 사이에 염료가 수분과 함께 재봉실을 타고 겉감으로 배어나와 발생된 띠 얼룩현상으로 사료되었음. 그러므로 이와 같은 원단은 건조속도를 빨리하면 띠 얼룩현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음.

♠ 자료출처 : 송종욱 역, 세탁에서 나타나는 문제의류 사고사례 도감, 한국세탁업중앙회, 2011

www.textilecare.kr